



인천대 숲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난달 26일 인천 연수구 청량산 숲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프리랜서 신승철

꽃은 친구, 나무는 선생님 아토피 깨끗이 나았어요

커버스토리 숲유치원 벽도, 창문도 없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천장이다. 그루터기와 바윗돌이 책상이자 의자다. '숲유치원'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교실을 내준다. 나무·바위·물·곤충 등 오감을 자극하는 숲 속 천연자원은 친환경 교재다. 국립산림과학원 구길본 원장은 "눈치 보지 않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숲유치원은 성장 발달은 물론 사고에도 날개를 달아 주는 전인교육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부모·교사가 모두 웃는 야생교육의 현장, '인천대 숲유치원(인천 청량산)'을 찾았다. 2009년 8월 문을 연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일반으로 운영된다.

국내 유일 매일반 운영 '인천대 숲유치원'의 전인교육
4월 26일 오전 8시30분, 인천시 연수구 청량산 입구. 황사비가 내렸다. 수은주가 9도를 가리켜 제법 쌀쌀했다. 오전 9시가 되자 6~7세 아이 34명이 모였다. 결색한 아이는 감기에 걸린 한 명뿐이었다.

아이들은 방수옷에 형형색색의 우의와 장화로 무장했다. 인천대 숲유치원의 모토가 떠올랐다. '나쁜 날씨는 없다. 나쁜 복장만 있을 뿐이다'.

숲유치원생은 오전 9시에 산에 올라 수업을 마치고, 낮 12시30분에 내려온다. 방학은 여름·겨울 통틀어 4주뿐이다. 인천대 숲유치원 김은숙 원장은 "태풍이 불거나 폭설이 오지 않는 이상 모든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교육장소로 이동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더디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동백꽃을 돋보기로 관찰하기도 한다. 행렬이 50m 이상 늘어져도 교사들은 채근하지 않는다. 성인 걸음으로 10분 정도 거리인 수업장까지 한 시간 남짓 걸린다.

아이들이 10m 길이의 쓰러진 아카시아 나무를 발견했다. 10여 명이 우르르 올라타더니 발을 구르면 반동을 준다. 과도처럼 출렁이는 아카시아에 매달린 아이들은 "신난다"며 깔깔거리다. 인천대 사범대 유아교육과 이명환 교수는 "나무를 타며 대근육과 소근육이 고루 발달해 성장에 도움이 된다.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기 때문에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숲유치원생들이 쓰러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 위에 올라타 발을 구르며 놀고 있다.




▶S2면으로 이어집니다
황운하 기자 unha@joongang.co.kr

숲유치원은=계절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모든 수업이 숲 속에서 진행된다. 나무·돌·흙·곤충 등 자연의 다양한 구조와 색·형태·냄새·변화를 오감으로 익힌다. 숲유치원은 195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됐다. 이후 스위스·독일 등으로 확산됐다. 독일에는 1000여 개의 숲유치원이 있다. 스위스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다니는 숲학교도 운영한다. 국내에선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2011 고객사랑 브랜드 대賞



104
당도



10월 11일

13월 11일

올해는 카네이션과 함께 **원터치 울트라이지**를 준비하세요


저혈당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컴퓨터로 관리하는 **원터치 울트라이지**


당뇨를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스마트한 혈당관리**로 매일매일 챙겨드리세요

원터치 울트라이지 핑크 카네이션 이벤트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도 챙기고, 힐리언스 상품권도 챙기세요!
기간: 2011년 4월 18일~ 2011년 5월 20일(33일간)

- ▶ 원터치 울트라이지 핑크를 구매하고 고객카드를 작성하시면 5분을 주첨하여 2인용 힐리언스 당뇨산책 참석권을 드립니다
- ▶ 원터치 울트라이지 핑크 세트를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께 뉴트로지나 선블록을 드립니다





응모처 및 관련 문의 원터치 고객 서비스센터 080-555-4499 / www.onetouch.co.kr / 한국콜마(주) (주) 힐리언스